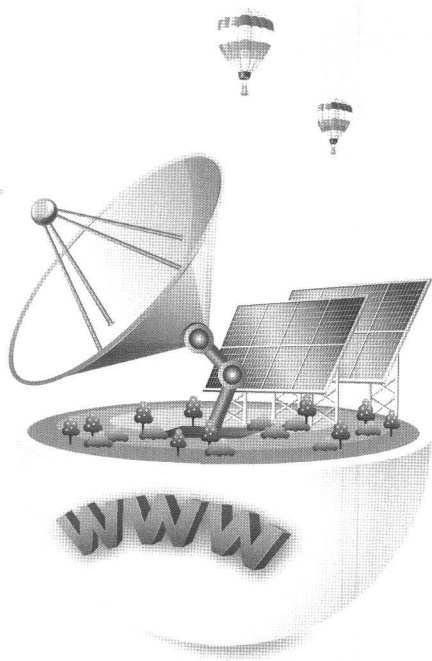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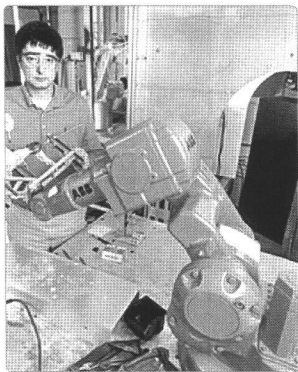


지구촌 양계 News



미국

닭고기 뼈 바르는 로봇 개발



미국 조지아공대 개리 맥머리 박사 연구팀이 인간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닭의 뼈를 발라낼 수 있는 로봇을 개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5월 29일 보도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수십년간 닭 뼈를 제거하는 로봇 개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로봇의 기능이 정교해져 수술을 하고 화성에서 모래알을 채취하는 시대지만, 사람의 눈과 손이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닭의

뼈와 살을 분리해내는 기술은 로봇이 모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맥머리 박사는 2004년부터 조지아공대에서 닭의 뼈를 발라내는 로봇 개발에 몰두해왔다. 이번에 공개한 로봇은 3차원 스캐닝 방식으로 생닭의 정확한 크기, 굵기, 형태 등을 인식한다. 체형과 육질이 제각각인 닭의 껍질·살·뼈 위치를 파악한 다음 한쪽 팔에 장착된 외과용 칼로 뼈와 살코기를 분리해낸다. 로봇이 생닭 한 마리의 뼈를 깨끗이 발라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숙련된 사람이 하는 것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고 맥머리는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은 벌써 양계업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WSJ에 따르면 업계는 이런 로봇의 개발을 잃어버린 성배(聖杯) 찾기에 비유하며 고대해왔다. 닭의 뼈를 제거하는 지루하고 단순한 작

업은 반드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로봇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다면 양계업계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닭고기 제품 가공에 필요한 시간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맥머리 박사의 로봇 개발은 미국 최대 양계 산업을 보유한 조지아주(州)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닭고기는 미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육류로, 1인당 1년에 약 38kg을 소비한다.

■ 美 도심 가정집서 닭 사육 확산

미국에서 안전한 먹거리와 자연 친화적인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텃밭 가꾸기에 이어 닭 사육이 새로운 유행으로 등장할 조짐이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북부 근교 도시 샌마리노에 사는 팸 킹 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얻고 뒤뜰의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 먹는 주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지난 5월 21일(현지 시간) 킹 씨가 사는 샌마리노 뿐 아니라 패서니다, 사우스 패서니다, 라카냐다 등 몇몇 도시가 가정집에서 닭 사육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집에서 닭 키우기' 운동이 이미 널리 퍼져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2009년부터 로스앤젤레스 집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로라 홀 씨가 만든 '가정집에서 닭을 키우자'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8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닭 키우는 방법 등을 서로 가르쳐주고 정보를 교환한다.

이들은 특히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제정

돼 지금껏 유효한 가정집 닭 사육 금지 조례 개정 청원에 적극적이다.

가정집 닭 사육을 허용한 도시도 상당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주거 지역 가정집에서 닭을 대량 사육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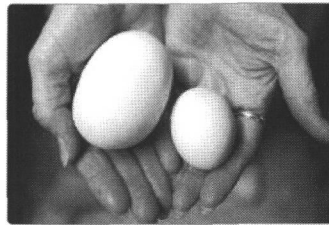
패서디나 시는 10마리 이상은 기르지 못하게끔 규제한다. 4개월이 넘은 수탉은 키우지 못한다. 사우스 패서디나 시는 12마리 이상도 키울 수 있게 허용하는 대신 닭장이 이웃집에서 적어도 60m는 떨어져야 한다. 12마리 미만이면 4.5m 간격만 유지하면 괜찮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에서 가까운 고급 주거지 라카냐다에서는 가정집에서 키울 수 있는 닭은 3마리로 제한되고 2개월이 넘는 수탉 사육은 금지된다.

이런 규제는 주거 지역 위생과 쾌적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 야구공 크기 달걀 안에 또 달걀



달걀을 품고 있는 자이언트 달걀이 나와 화제다.

야구공 크기의 달걀이 생산된 곳은 미국 텍사스 애빌린의 한 양계장. 리포터-뉴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곳에선 최근 한 암탉이 보통 달걀보다 2.5cm 정도 큰 달걀을 낳았다.

무게는 145g으로 보통 크기보다 2배나 무거웠다. 달걀은 45~55g 정도 나가는 게 보통이



다. 닭장에서 달걀을 줍다 엄청나게 큰 달걀을 발견한 쿠키 스미스(여)는 남편에게 달걀을 가져다 보이며 “뮤턴트 슈퍼 에그가 나왔다”고 했다.

병원에서 일하는 그는 찍은 사진을 동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큰 달걀 봤느냐.”며 자랑을 했다. 엄청나게 큰 달걀이 발견됐다는 사실은 입소문을 타고 퍼지다 지역 언론에까지 전해졌다.

언론매체 리포터-뉴스는 최근 ‘뮤턴트 슈퍼 에그’를 취재하기 위해 부부의 농장을 방문했다. 스미스는 취재를 나간 현지 기자에게 ‘뮤턴트 슈퍼 에그’를 보여준 뒤 달걀을 껐다.

여기에서 깜짝 놀랄 일이 또 벌어졌다. ‘뮤턴트 슈퍼 에그’ 안에는 보통 크기의 또 다른 달걀이 들어있었다.

외신은 “달걀 안에 또 다른 달걀이 들어 있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보도했다.

- 나우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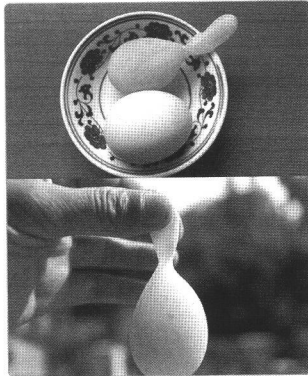
중국

‘꼬리 달린 희귀 달걀’ 화제

중국의 꼬리 달린 희귀 달걀이 이목을 끌었다.

지난 5월 28일 영국 데일리메일은 중국 장쑤성의 한 농장에서 발견된 꼬리 달린 희귀 달걀을 소개했다.

이 꼬리 달린 희귀 달걀은 일반달걀의 타원형 몸체에 1인치 가량 길이의 물결한 꼬리가 달린 것이 특징이다. 또 꼬리길이 까지 합치면



길이만 8.5cm에 달한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긴 힘들지만 어미 닭의 스트레스 때문에 기형을 낳았을 거란 추측과 달걀이 어

미 몸속에서 부족한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변형됐을 거란 추측을 하고 있다.

- 서울=뉴스웨이

대만


고병원성 AI 발생

대만의 닭 사육 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행정원 농업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 닭 집단 폐사가 발생한 대만 중서부 윈린(雲林)현의 양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H5N2 AI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올해 들어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5번째이다.

당국은 이 농가에서 키우는 1만8천여 마리의 닭을 모두 살처분키로 하는 한편 인근 반경 3km 이내 양계 농가에 대한 방역작업과 이동제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AI의 발병 원인과 전파경로 등에 대한 역학조사에도 착수했다. 

- 타이베이=연합뉴스